

루시·호빗·데니소바인... 조상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인류의 기원

이상희·윤신영 지음

최초의 인류는 누구이며, 어떤 모습을 하고, 언제 나타났을까?

35년전 중학시절 세계사 과목 첫 머리는 '인류의 기원'으로 시작했다. 그때 오스트랄로 피테쿠스→호모 에렉투스→네안데르탈인→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했다고 배웠다. 아프리카 삼림지대에서 내려와 초원지역에서 생활하며 두발로 걷기 시작한 인류가 전세계로 퍼져나갔다는 학설도 함께였다. 그러나 이후 아프리카를 비롯해 각지에서 인류의 기원을 추정할 수 있는 많은 유골 고(古)화석이 잇따라 발견되며 '인류의 기원' 학설도 뒤집히며 다시 쓰이고 있다.

고인류학자인 이상희 미국 캘리포니아



세계로 독자를 이끈다.

'난쟁이 인류 호빗에서 네안데르탈인까지 22가지 재미있는 인류이야기'를 부제로 삼아 필자는 최신 고인류학이 이뤄낸 성과들 가운데 매우 중요하면서도 일반인들이 흥미로워 할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인류진화 역사의 이정표를 짚어보는 이 여행을 관통하는 큰 즐거움은 '오늘날의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징이란 무엇인가'하는 물음, 결국 인류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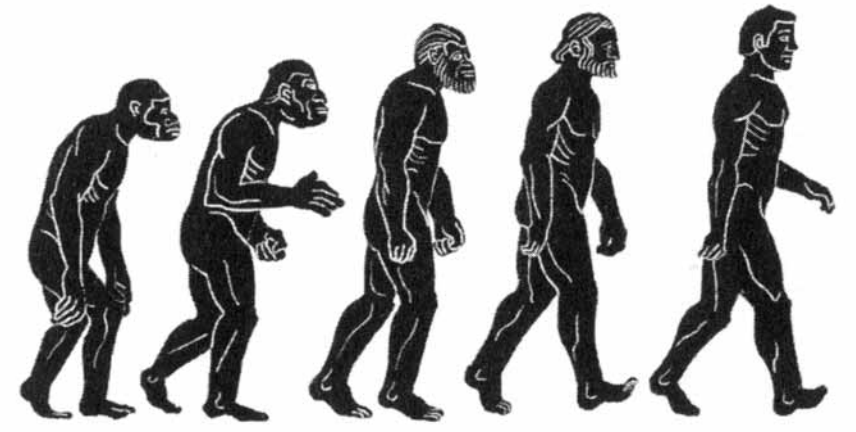
분자생물학 연구에 따르면 현생인류 조상과 침팬지 조상은 800만년전에서 500만년전 사이에 갈라졌다. 최초의 인류조상은 500만~700만년전 아프리카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인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계속 발굴되고 있



는 인류 화석과 네안데르탈인을 대상으로 한 최신 연구는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탄생해 전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기존의 '아프리카 기원론'을 벗어나 다양한 지역에서 현생 인류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화했다는 '다(多)지역 기원론' 논쟁이 뜨겁다. 일례로 지난 2003년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에서 발굴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일명 호빗)는 뇌용량이 갓난아기나 어린 침팬지보다 작은 40cc에 불과하고, 키도 1m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후반 급격히 발달한 유전학과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며 인류탄생과 진화를 밝히는 연구들이 신기원을 맞게 됐다.

지난 2008년 러시아와 몽골 접경지대인 알타이산맥 근처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콩알만큼 작은 뼈가 발견됐다. 고(古)유전자 분석기술을 이용한 연구결과 뼈의 주인공은 성장판이 아직 닫히지 않은 6~7살 정



도의 여자아이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네안데르탈인이나 현생 인류의 DNA와 차이가 있었다. 고인류학자들은 현생인류도 네안데르탈인도 아닌 7만년전에 살던 '제3의 인류'로 결론내렸고 '데니소바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고인류학자는 두꺼운 지층에서 발굴한 뼈조각 하나에서 인류 조상이 언제, 어디에서 등장했는지 유추한다. 1976년 동아프리카에서 330만년전에 살았던 인류 화석 '루시'를 발견한 부모(루이스·매리)에

이어 아들·머느리(리처드·미브), 손녀(루이즈)까지 3대에 걸쳐 인류화석을 연구하는 리키 가문의 스토리도 흥미롭다.

인류의 기원을 파헤치는 사이 인류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연구중거는 전에 없던 또다른 형태의 다양성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기원뿐만 아니라 '인류의 종말' 역시 궁금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사이언스 북스·1만75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국의 골목길 발로 누비며 격동의 근대사 들여다보기

골목길 근대사

최석호 등 지음



1897년 고종 황제는 목포를 개항한다. 부산, 원산 등에 이은 다섯번째 개항이었지만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개항한 첫 사례다. 목포에는 근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목포를 걷는다. 유달산, 노적봉, 목포근대역사관을 지나 햇볕 따듯한 언덕 마을 '다순구미'에 닿는다. 성육 기념관, 목포진과 김대중 대통령이 학장 시절을 보낸 영신회관 터를 거쳐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으로 발길이 이어진다.

최석호 한국국제경영연구소장 등이 쓴 '골목길 근대사-정동에서 부산까지 : 1887~1950'는 전국 골목길을 발로 누비며 격동의 근대사와 문화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책이다.

천사의 섬 신안군의 '중도 산책'도 눈여겨 볼 만하다. 중도 작은 섬에는 11개 교회와 있고 마을 주민 90%가 기독교 신자다. 중도를 걷는 키워드는 이념과 계급 갈등으로 분열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던 문준경 전도사의 삶의 흔적을 따라

걷는다.

또 을사늑약과 아관파천의 현장인 중명전과 러시아 공사관, 최초의 근대 사학인 배재학당과 이화학당, 최초의 개신교 교회 정동교회, 경희궁 터, 흥화문, 7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 등 '노전 역사 박물관'이라 부를만한 서울 정동과 운동주 문화관, 박노수 미술관, 수성동계곡 등을 거니는 서촌 산책이 이어진다.

그밖에 간송 전형필과 상허 이태준의 흔적을 찾은 서울 동산 산책길을 소개하며 장거리 박사의 삶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부산 산책은 168계단과 40계단, 왜관 거리와 청관거리, 보수동 헌책방 골목, 부산근대역사관, 국제시장으로 발길이 이어진다. 〈시루·1만3800원〉/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프라이다이아믹스=경영컨설팅회사 글로벌오피파트너스 고희준 대표의 책. 지식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역량과 마인드를 조목조목 알려주며 실질적인 업무 수행 노하우까지 알차게 담았다. 2000년대 초 경영컨설팅 업계에 입문해, 2009년 단돈 200만 원의 자본금으로 글로벌오피파트너스를 설립해 5년 만에 40명의 직원과 연간 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컨설팅회사로까지 성장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티핑포인트·1만3800원〉

▲상생도시=토지까지 공유를 통해 상생도시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시재생의 길을 모색하는 책. 도시재생과 공공토지인 대재 등을 연구하고 있는 저자 조성찬 박사는 토지까지 공유형 도시재생론의 이론을 살피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모델을 개발하고, 토지까지 공유형 도시재생 사업 모델들을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재건



축 단지, 도시환경정비구역, 뉴타운재개발구역, 전통시장 안정화 사업 등에 실제 적용해 실현 가능성을 증명할 검토한다. 〈알트·2만2000원〉

▲강동 반지=20세기 역사에 있어 가장 비극적인 사건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즈덴카 판로바의 놀라운 인생 이야기이자, 끔찍한 상황을 견디면서 삶의 의지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낙관을 잃지 않았던 한 어린 여자의 용기에 대한 증언. 홀로코스트의 잔혹성을 직접 목격한 몇 안 되는 생존자인 저자는 히틀러의 나치가 자행한 만행을 소박하고 담담하게 기술함으로써 자신이 인내한 고통과 고난을 감성적이지



다 과장되지도 않게 전한다. 〈책이있는마을·1만5000원〉

▲프로이트 의자에서 내 꿈을 만나 봐=이상적인 존재인 인간이 무의식과 성적인 충동에 더 많이 지배당한다는 프로이트의 주장은 '꿈의 해석'이 발표된 1900년 당시에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불편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윈의 진화론에 견줄 만큼 높이 평가되고 있다. 책은 '꿈의 해석'의 집필과 관련된 프로이트의 주요 생애를 보여주며 해설해 정신분석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준다. 〈나무를 심는 사람들·1만2000원〉

▲삶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작가수



업 시리즈 1탄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로 어느 책에서도 서술되지 않았던 문예창작 원론을 이야기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김형수 작가가 2탄 '삶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로 돌아왔다. 전작이 '문학관'의 가치관을 통해 기성 이론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다면, 이 책은 '창작관'의 가치관을 통해 의미 있는 움직임들을 모아 서 독자적 실천 담론을 구성하려 했다.

〈아시아·1만3000원〉

▲이야기를 담은 사찰 밥상=티고난 입담꾼인 서울 북촌생활사박물관 이경애 관장이 퍼낸 24가지 사찰음식 이야기. 기존 사찰음식 관련 책들이 레시피 전달과 사찰음식의 건강함에 대해 다뤘다면 이 책은 사찰음식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이야기를 전달한다. 오래된 것들을 바라보는 특별한 눈과 입을 통해 과거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먹었던 음식에 대한 추억을 속살거리주고, 자연스럽게 선조들의 지혜를 짚어 준다. 더불어 더 좋은 맛을 찾아다니는 시류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놓기도 한다. 〈아름다운 인연·1만3800원〉

어린이 책

▲우리 도시가 달라졌어요!=일본, 쿠바 등 아시아 대륙을 포함한 8개 국가의 도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깨끗한 환경이다. 8개 도시들의 다양한 변신 성공 사례를 통해 행복한 삶과 좋은 주거환경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스스로 깨닫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다. 〈가교출판·1만2000원〉



▲내가 너에게=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고 자신의 힘으로 인간과 삶에 대해 알아가는 초등 고학년용 위한 책.



학교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기묘하고도 환상적인 여섯 편의 이야기들은 각기 다양한 형태로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으스스한 학교 괴담을 읽는 것 같은 즐거움도 제공한다. 〈바람의 아이들·8500원〉

▲우주가 있는 곳=오랜 세월 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보냈던 김종상 동시집. 총 4부로 구성된 조화로운 자연의 모습, 이기적인 인간과 대조적인 평화로운 자연, '물푸레나무', '아침 밥상' 등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교감하는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청개구리·9500원〉

▲이야기를 팝니다=아이들에게 글쓰기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그림책. 창의적인 글쓰기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루퍼스의 모습을 통해 마냥 어렵고 다가가기 힘들어 보였던 글쓰기가 얼마나 훌륭한 놀이로 될 수 있는지 느끼게 해준다. 신나고 재미있는 온갖 이야기들이 가득한 루퍼스의 이야기 판매대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모여 있을까. 〈책과 콩나루·1만1000원〉

구 남영비즈타워가 상무비즈니스센터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상무비즈니스센터

시청도보 5분 거리 | 관공서 밀집 지역 | 오피스 전용 빌딩 | 넓은 주차공간 | 저렴한 관리비

임대문의: 010-2633-1100 | 관리실: 062-381-5551 | Fax: 062-384-5551

NAVER 건강생활연구소 단비플라워 추천상품

단비플라워

죽아와관3단 | 근조화관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백성) 302-0316-649511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식후 혈당 상승억제에 도움!!

Yn 유한메디카 **글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에 드립니다 ※

DAUMNAVER 백세생활건강 |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